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바다는 쓰레기장이 절대 아니랍니다!



국제연안정화의 날
- 9월25일 해양공원 -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

가을인가 아직 여름인가 하는 이 날씨... 가을, 겨울 그리고 따뜻한 봄 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곤충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곤충들은 추운 겨울 어디 갔다 봄이 되면 보일까요?



지금 네발나비는 번데기입니다.(9월 28일 천성산 자락) 언제 번데기의 모습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요 친구는 몇일 후 건강한 네발나비로 우화할 듯 합니다. (단, 기생당하지 않았으면 말이지...!) 건강히 우화한 네발나비는 가을 들녘을 날아다, 그 모습으로 추운 겨울도 이겨낸답니다.

요녀석은 번데기 속에서 올해의 여수 겨울 날씨가 어떨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여, 몸을 만들고 있을 듯요!!

지역현안 관계당국의 '울촌면 검은비 원인 규명 실패'을 보면서 드는 생각 - 문갑태 국장

지난 2013년 6월 11일 오후 8시부터 약 30-40분간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면소재지) 일대 1ha가량의 대지에 미세한 '모래와 철' 성분이 포함된 검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명 '검은비'로 지칭되는 쇠가루였는데, 이 검은비로 인하여 일대의 차밭, 건물, 농작물 등이 검은색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여수시는 다시 한번 공무원 비리도시의 오명에 이어 환경오염도시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계당국은 전라남도도를 포함한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검은비의 원인과 중금속 성분, 농작물오염과 식용유무,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고 사고회사를 찾는 등 분주했습니다.

다행이 검사결과 하천수는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하천 유해성분이 미 검출되는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토양검사결과 역시 토양오염을 우려기준 이하로 특이사항이 없다고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유해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인근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검출됐다고 밝히고, 카드뮴 농도는 광양이 kg당 1.1mg인데 비해 울촌은 13.6mg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무려 13배가 높게 검출됐었습니다. 이 센터는 "유해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이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만큼 농작물 식용여부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의해 대기 중 이동경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분진이 강한 초속 4.2m의 동풍을 타고 울촌면 일원에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근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테코산업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증거 불충분하다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증거 불충분하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국가가 국가기관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당업체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하다란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핵심 사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검찰, 행정소송 항소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을 볼 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2, 제3의 검은비를 촉발 할 것이고, 그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여수시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또한 2심은 당연히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영산강청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 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영산강청에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관계당국에 후속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재발방지 대책, 판결이후의 대책방안을 물을 것입니다. 검은비 사건은 전국적으로 중요 환경오염 사건이 되었음에도 아무 원인으로든 사건이 종료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환경범죄 사안이기에 때문입니다.

- 개요-
- 2013년 6월 11, 울촌검은비 사건 발생
 - 2013년 9월 : 영산강유역환경청 -> H회사
 - ①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② 1달간 영업정지 명령 -> 행정처분 의뢰
 업체 대응 : 행정처분 정지 가져분 신청과 관련된 소송 진행함
 법원 판결 : 1심 소송 나흘째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지 명령
 - 2013년 12월 31일 - 광주지검 순천지청 : '증거 불충분'을 주된 이유 '혐의 없음' 처분
 - 2014년 7, 17일 - 광주지법 순천지원 : 영산강환경청의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위법'

활동뉴스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기후재앙시대, 동아시아 기후전략은?"



지난 9월 16일 부터 18일 까지 한중일 NGO의 만남,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열렸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동아시아 기후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3국의 환경문제를

- 공유하고 격년으로 동아시아 환경시민회의를 개최해 왔는데요, 이를 토대로 지난 2010년 한국의 광주에서 '제1회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했고 그 뒤 한일중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제4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을 이곳 광주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 ▶ 저탄소동아시아를 위한 시민활동
 - ▶ 녹색도시, 녹색차
 - ▶ 후쿠시마 이후 동아시아 핵에너지향방
- 등의 발표자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내륙습지 63% 감소했다"

국내 내륙습지가 4대강 사업 등으로 약 63%가량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갯벌 등 연안습지도 간척지 매립 등으로 기존보다 75%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총습지면적은 최근 6년간 43%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한국시민네트워크 워크숍에서 한국습지NGO 네트워크박종욱 운영위원장은 한국의 습지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내륙습지 면적은 50만7603ha에서 4대강 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2년 18만7276(1976개소)로 무려 63%가 감소했다. 또한, 2010년 발간된 '대한민국 황해(YSBR)의 조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와 생명의 터 청사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경우 기존 46만ha에서 75%가 감소한 10만 6천ha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서를 통해 공개한면적 24만8940ha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습습지의 경우도 1988년 135만 8천ha에 달하던 면적이 2013년 96만 4천ha로 감소하면서 지난 27년간 약 30%, 39만 4천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이날 소개된 총 8개 분과(산림, 인식증진, 해양, 논습지, 습지, 에너지, DMZ, 보호구역)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오는 29일부터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국토생태-활동소식을 참고하세요.

지진 발생하는 경우,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위험하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위치한 경우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해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 진도 2.2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23일에는 규모가 훨씬 큰 3.5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두 번이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두 차례 지진 모두 월성원전 및 신월성 원전, 경주 방폐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인 지진의 진앙지로 활성단층이 계속 발견되면서 지진 위험지역으로 지목된 곳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원전지역 지진발생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해 원전과 방폐장에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팻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45회-1. 대제양>월성1호기 너도나!>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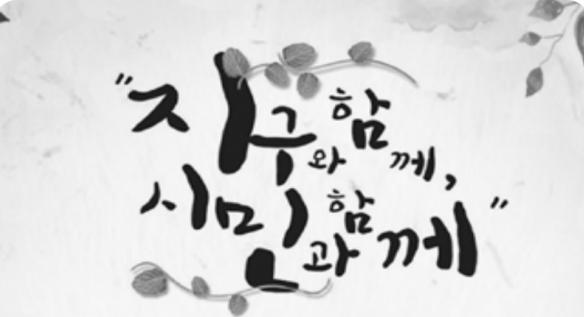
회원이 전하는 민물고기 이야기

우리나라 강과 하천, 저수지나 댐 등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 -임종약(회원, 수산양식기술사)

다미샘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많은 물줄기를 만나서 넓고 커다란 섬진강을 만들어 구례, 순천을 지나 광양만으로 흘러가듯 산속 골짜기 등에서 시작된 가느다란 수많은 물줄기는 하천과 강을 이뤄 동해나 남해, 황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실개천에서부터 커다란 강이나 호수, 댐 등에는 약 220여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60여종은 지구상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한민국 고유어종입니다.

여수에서도 배로 한 시간 남짓 가는 섬마을에서 유년과 학창시절을 지내며 바다고기에 익숙한 나로서는 우연한 기회에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잉어, 붕어 등 우리나라 토종어류를 접하였고, 이름이 생소한 동자리, 물밖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버들붕어, 물밖에 내놓으면 빠가빠가고 우는 동자개(빠가사리), 책에서만 봐왔던 철갑상어, 회감으로 애용하는 쏘가리, 그밖의 피리, 돌고기, 중고기 등 많은 민물고기를 접하면서 생김새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어 답답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도감이나 관련책자가 많이 출간되어 민물고기를 구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이웃과 환경을 생각하는 회원들에게

알립니다.



2014년 여수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날 '아름다운 이야기 나눔터'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 평화, 참여를 기치로 18년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현안과 문제를 풀하고 뒷다트리며 우리 지역과 환경을 지키고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듯 의미 있고 소중한 결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동환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자리하여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왔던 길보다 가야 할 길에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2014.10.31 (금) 시티파크 레스토랑

찾아오시는길 시티파크 호텔

후원계좌 통금 301-0151-9376-41 (여수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문의 061-682-0610 (여수환경운동연합)

555-802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신기동) 전화 : 061) 682-0610 팩스 : 061) 691-0680 E-mail : yosu@kfem.or.kr 홈페이지 : yosu.kfem.or.kr

진실이 궁금하십니까

4월 1일 국민TV 개국

국민TV는 전혀 다른 뉴스족, 공정보도를 할 것입니다.

포함언어팀 : kskmktv 전화 02-3144-7737, 02-3144-0933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민물고기를 이름순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체 민물고기 종류를 소개하고, 나중에 지면을 빌어 종류별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제 1장 "ㄱ"으로 시작하는 민물고기 "ㄱ"으로 시작하는 민물고기에는 가는돌고기, 가물치, 가시고기, 가시납자루, 기름종개, 긴물개, 격지, 꼬치동자개, 꾸꾸리, 꼬리 등 20여종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유어종인 긴물개와 꼬치동자개등이 있으며, 격지와 기름종개는 자원량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이기도 합니다.

그림) "ㄱ"으로 시작하는 민물고기

긴 물 개	꼬치동자개
기름종개	격 지